앗! 적성검사 깜빡…운전면허 취소 '날벼락'

광주·전남 올들어만 1024명
통지서 못받는 경우도 많아
안내 시스템 개선 등 필요

광주·전남지역 운전자 중 운전면허 발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낸 사람이 연간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시 재취득을 위한 시험 등을 감안하면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적성검사 고지 방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024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5.66명꼴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오는 12월 말까지 면허 취소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3년 기록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와 2012년엔 각각 1332명(하루평균 3.65명)과 1826명(〃 5.00명)이었다.

또 올해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낸 경우도 7626건(2억1803만원)이나 됐다. 2012년과 지난해엔 각각 1만1591건(3억2958만원)·1만2524건(3억5827만원)이었다. 과태료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부과되며, 이 기간 적성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3만원을 낸 뒤 열흘 이내에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후부턴 ▲법규 취소자 교육 6시간 이수와 학과시험 합격(적성검사 만료일 1년 초과 5년 미만) ▲법규 취소자 교육 6시간과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 합격(5년 초과)의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증을 손에 쥘 수 있다.

면허 취소를 당한 운전자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편물로 배달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갱신을 차일피일 미루는 운전자가 많은 탓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전 일반우편(75일전)을, 이후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임박했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적성검사 안내통지서나 면허취소 예고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억울하게 면허 취소를 당하는 운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소불명·이사·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에 대해선 소재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 6개월 전, 7일 전에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예전 전화번호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안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자 정보를 등록해 본인의 검사기간을 확인해야한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별도로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선박 수리 작업 중 암모니아 가스 누출
여수 조선소서 1명 사망·19명 중경상

여수시 한 조선소에서 선박 수리 작업 도중 발생한 가스 누출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9명이 가스를 흡입,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산단과 조선업체가 밀집한 여수지역에서 화재·기름유출·가스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도 안전의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오후 4시10분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여수해양 조선소 내 키리바시 국적의 사조산업 소유 1102t급 참치잡이 원양어선 마로라로이호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 현장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던 진모(60)씨가 숨지고 김모(여·57)씨 등 19명이 화상을 입거나 누출된 가스를 흡입, 인근 3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서 90여명이 작업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사고는 근로자들이 사고 선박에서 용접과 도색·청소 작업 등을 벌이던 중 노후화된 참치 보관용 냉동 암모니아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해당 선박은 지난 26일 여수에 입항, 오는 16일까지 점검·수리가 계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나자 여수경찰·소방서를 비롯, 여수고용노동지청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역본부가 현장에 출동해 잔류 가스를 제거하는 한편, 피해 현황 및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상태다.

여수경찰과 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은 현장 작업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및 현장 감독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
/여수=김창화기자 c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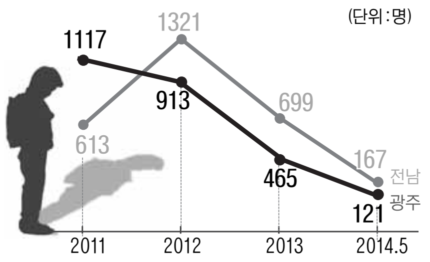
지난 31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주)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 여수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 암모니아 누출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아파트서 듣는 나무 이야기 재밌어요"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우미광장 아파트에서 숲생태해설가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무들의 이름과 특징 등을 설명해주고 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열린 이 행사는 1일까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어린이들에게 어울리는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줄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 학교폭력 확 줄었네

작년 광주 465건·전남 699건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
학교 자율예방활동 등 성과

■ 경찰청, 광주·전남 학교폭력 처분 현황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 학교폭력 발생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465건이다. 2011년 1117건, 2012년 913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들어 5월까지는 121건에 불과했다.

전남지역도 학교폭력 감소세가 뚜렷하다.

2011년 613건에서 2012년 132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99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들어 더욱 줄어 5월까지 167건에 그쳤다.

전국 발생 건수도 2011년 2만1957건에서 2012년 2만3877건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1만7385건, 올해 상반기 4933건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광주의 경우 폭행이 300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갈취(54건), 모욕·명예훼손(11건) 등의 순이었다. 이로 인해 3명이 구속됐고 339명이 불구속됐으며 40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전남지역도 폭행이 66.9%((468건)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금품갈취(127건), 모욕·명예훼손(27건)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23명이 구속됐고 312명이 불구속, 94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학교급별로는 광주와 전남 모두 고등학생(광주 188명, 전남 307명)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109명, 251명), 초등학생(20명, 22명)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감소는 정부의 강력한 척결의지에 따라 각 부처가 협력하고, 학교현장에서도 자율 예방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스민 의원실 관계자는 "성과는 있지만 학교폭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현장에서 폭력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병언 순천행' 차량·도피자금 7000만원 압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31일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씨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행원으로부터 받은 통장을 확보했다. 통장에는 7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3일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유씨를 태우고 순천으로 도피할 때 이용한 벤틀리 차량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압수했다.

김씨의 통장과 유씨의 장남 명의 벤틀리 차량 모두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A씨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씨의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유씨로부터 수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 수행원 신모(33·여·구속기소)씨는 유씨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순천 경찰에 "유병언 회장이 도피 초기에 김엄마와 양씨에게 돈을 주라고 해서 줬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구속기소)씨에게도 2억5000만원 가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추씨는 이 돈으로 송치재 인근 땅과 부속 건물을 매입했다.

그동안 벤틀리 차량의 행방도 묘연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양씨가 유씨를 순천 별장에 내려주고 경기도 안성으로 되돌아 온 직후인 지난 5월 4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비웃는 듯 해서…호프집 종업원 때린 父子 나란히 경찰서행

쌍나팔

○…호프집 종업원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때린 부자(父子)가 나란히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9)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W호프에서 종업원(25)의 빰을 한 차례 때린 혐의.

○…박씨의 아들(24)은 종업원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쫓아가 폭행했는데, 박씨는 경찰에서 "아들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안주 주문을 하던 중 종업원이 비웃는 표정을 짓는 것 같아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

(주)오천경매 / (주)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2대1 또는 1대1 투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 설정으로 보장
연 10~24% 매월 지급
투자기간은 1년 정도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